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II부. 재산권과 공유재의 정치 경제학

사회가 정보환경을 형성하는 방식은 인간의 핵심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누구에게 발언이 허용되고,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가능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의 세계는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철학적 질문들은 효과적 인간행동의 토대(土臺)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에게 가능한 선택권의 범주와 그 행동을 선택한 경우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이해한다. 어떤 문제들은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지만 집단적 목표설정이나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도 있다. 위 질문들은 개인들이 정치적 실체이자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을 준거로 어떤 의견들이 집단행동으로 발전되고, 배제되어야 하거나, 공론화되기 어려운지가 판가름 된다. 자유는 개인들과 사회가 속해 있는 정보환경에 달려있다. 정보는 개별적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을 실현하는 가능성의 기초를 이룬다. 공동체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실행이 가능한 해결책들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은 집단행동에 필요한 형식적, 비형식적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제도적 생태가 비시장 생산(개별적 형태와 협력적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네트워크 경제가 제도적 생태의 내부로 융합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는 모든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개인들의 작업수행을 수월하게 해준다.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나 자신을 위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매스 미디어 문화에서와는 달리 쉽사리 언론 보도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이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관계들의 출현은 개인들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누구든지 참여하여 활발하게 공공토론을 벌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은 공적 담론에 지속적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들은 언변 좋은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통념적 견해”(received wisdom)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사회적 구조를 가진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적 토론자로 변화한다. 세상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더 분명히 파악하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타인들의 주장이 진실인가를 확인하여 반박하고, 독자적 주장을 펼치고, 유사한 의견이나 반대 의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집합적 이해의 차원에서 보면, 산업경제로에서 네트워크 정보경제로의 이행은 개인들에게 문화적 환경의 생산에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과 기회를 크게 확장시켰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은 더욱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략.....)

1990년대 초반 무렵에는 인터넷이 개인들에게 더 폭넓은 자유를 부여하고, 전 세계에 개선된 평등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있었다. 테크노필레(technophile,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반기는 사람들)는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긍정적 미래를 낙관했다. 그 기대감에 찬 모습은 마치 테크노포브(technophobe,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여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가 사이버 포르노, 사이버 범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사이버 테러에 질겁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듯이 지극히 전형적이었다. 인터넷의 등장하자 테크노필레가 보였던 반응은 전기, 라디오, 전신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을 연상시킨다.¹ 제임스 케어리(James Carey)는 전신(telegraph)을 “전기적 숭고미를 갖춘 뮈토스”(the mythos of the electrical sublime)라는 찬사로 표현했다.²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찬사어린 표현이 자세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테크놀로지 유토피아니즘(technological utopianism)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³ 초창기의 유토피아적 비전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당시에 출현한 테크놀로지가 인간 삶의 조건(물질적, 사회적, 지적 조건들)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테크놀로지는 과거에도 역시 인간 삶의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은 각 사회마다 달랐다. 테크놀로지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모습은 테크놀로지와 결부된 “사회적 유토피아”(social utopias) 개념에서 갈라져 나왔다. 각 국가는 테크놀로지를 사회와 문화적 관습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흡수하여 활용했다. 그 결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양상은 달라졌으며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국가의 제도적 전략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어떤 국가들은 테크놀로지를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국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술을 수용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국가도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규제를 거의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토피아” 내지 “최선의 경우”(best case)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롭게 활용되었다. 첫째,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지닌 사회적, 정치적 속성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유의적 속성들을 규범적 개념(normative conception)으로 전환시켜 수용하도록 해주었다. 이 시사점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앞으로 닥쳐오는 기술적 섭동(technological perturbation)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련할 제도적 대응들은 앞으로 수 십여 년에 걸쳐 자유와 정의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II 부는 자유로운 공헌(liberal commitments)에 관련된 논점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개인적 자율성을 다룬다. 6장, 7장, 8장은 민주적 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공론장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문화의 구성(construction of culture)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겠다. 9장에서는 정의와 인류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10장에서는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할 것이다.

¹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테크놀로지의 신화적 표상”(technological mythology)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제임스 케어리(James Carey)는 사이버 공간의 기원을 인터넷이 발명된 때가 아니라 전신, 전화가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두고 있다. 제임스 케어리(James Carey)는 테크놀로지 숭고미(technological sublime)를 유토피아적 은유로 표현했다. James Carey, <Communication as Culture> (1992)를 참조함. (윤건이)

² 제임스 케어리(James Carey)와 존 퀴크(John Quirk)가 제시한 “전기적 숭고미”라는 수사법(the rhetoric of the electrical sublime)은 전신(telegraph)의 개발 이후 미국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연구자료와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재인용되고 있다. “전기적 숭고미”는 사회적, 물질적 제약을 단번에 뛰어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종교와 유사한(quasi-religious) 믿음과 찬사를 나타낸다. (윤건이)

³ 레오 막스(Leo Marx)는 ‘테크놀로지의 숭고함’(technology sublime) 개념을 제시하였고, 데이비드 나이(David E. Nye)는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을 ‘디지털의 숭고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래는 숭고미는 그랜드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요세미티 공원 등 웅대한 자연을 볼 때 인간이 느끼는 존경심과 공포심의 상태를 의미했지만, 근대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테크놀로지를 마주할 때도 숭고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라웨이 부인(Mrs. Dalloway)의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하는 전신, 전화, 라디오 등은 주인공이 느끼는 초월적 미학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숭고미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전화나 컴퓨터는 처음 등장했을 무렵과는 달리 현재는 테크놀로지의 숭고미를 보여주는 아이콘이 아니다. 무미건조하고 진부한 물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전화나 컴퓨터가 유토피아적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Vincent Mosco <The Digital Sublime: Myth, Power, and Cyberspace>(2004)을 참조함. (윤건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